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대규모 용·복합물류단지로 바뀐다

여수광양항만공사·해수부 협약 체결...2029년까지 4562억 투입 여의도 규모 318만㎡ 율촌물류단지 조성...미래신소재 등 입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와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하 율촌 용·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율촌 용·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562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여의도 면적(318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에는 미래신소재(화학·석유정제·금속산업 등), 복합첨단산업(전자·의료·정밀기계 등), 복합물류제조(창고 및 운송

업 등) 등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다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이 부지는 석유화학 입주기업들이 미래 신산업 투자(약 7조원) 용지로 조기에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지역이다.

이번 물류단지 조성은 여수산단의 용지 확보 어려움 해소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통해 여수·광양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두차례에 걸친 경제장관회의에서 여수·광양항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

기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기간 단축(2개월),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물류용지 조기공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초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2021년 초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2022년 말부터 용지공급 및 입주기업 공장 설립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진입교량, 오·폐수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등 정부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율촌 용·복합물류단지를 단기간 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공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4만5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뿐 아니라 8조30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약 940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로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은 준설토 매립장으로 활용이 끝난 구역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신소재산업 등 용·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율촌 용·복합물류단지 조감도

언어장벽 없는 광양 만들기 '앞장'

24시간 무료 전화 통역서비스...시-BBB코리아 실무간담회

광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국제협력관에서 (사)BBB코리아와 '언어장벽 없는 광양 만들기'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사)BBB코리아는 휴대폰을 통해 전국 통역자원봉사자 4500여 명이 20개국 언어로 24시간 무료 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이다.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봉사자들과 연결되는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의 주재로 개최됐으며 (사)BBB코리아의 최미혜 사무국장, 박지은 대외협력팀장, 박신영 문화사업팀장, 임병진 광양시 외국어 통역자원 봉사자 영어권 회장, 김성훈 중국어권 회장, 기존 (사)BBB코리아 회원으로 활동 중인 광양, 여수, 순천지

역의 통역자원봉사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18-2019 광양시 국제교류성과 및 시민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활동 영상 시청과 (사)BBB코리아 통역서비스 대시민 확산 방법, 주요안건 협의 및 활동소감 교류 등 참석자들의 열띤 발언으로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남 최초로 외국어 통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광양시 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며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홍보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지역 (사)BBB코리아 김정숙 봉사자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광양시가 굉장히 세련된 도시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미혜 (사)BBB코리아 사무국장은 "광



광양시와 (사)BBB코리아가 지난 11일 '언어장벽 없는 광양 만들기' 후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광양시 제공>

양시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광양시와 함께 '언어장벽 없는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포스터, 스티커 등 안내자료 제작 배부와 현장방문 안내 등 (사)BBB코리아 통역서비스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호응'

광양시, 예산 추가편성 검토

광양시가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높은 호응으로 예산 추가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한은행,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해부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19~39세 이하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까지 224명이 신청, 1억9100만원이 지원돼 하반기 예산소진이 압박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하반기 이차지원 추가 신청자를 예측해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추가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임채기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청년에게 알려진 것 같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69세대 116명의 관외거주자가 광양시로 전입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저출산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출산정책 성과...올해 출생아 수 늘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증가

광양시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가 62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591명보다 5.6% 늘어났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수가 늘어나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광양지역 출생아 수는 2015년 1680명에서 2016년 1447명, 2017년 1300명, 2018년 118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 현재 624명이어서 이런 추

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신생아 양육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한 시책을 추진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둘째 자녀부터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도 산모가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준다.

무엇보다 기간과 관계없이 광양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지역사회, 시민이 힘을 모아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19일까지 추가 모집

광양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남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내 마을단위 사업장에 만18~39세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마을의 활성화 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광양시 지역내 소재 마을에 기반을 두고 경제 및 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지활기업, 영농영여조합법

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산업·농공단지 내 지역의 대표 농·수·축산물, 특산물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청년활동가의 활동을 통해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곳인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한옥마을 등의 사업장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최대 2년간 월급여 180~200만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식비와 교통비 30만원, 사업장 4대 보험 부담금(25만원 한도), 청년활동가 직무역량 강화 비용 등이 지원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4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사무대로

4농성역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